

# 韓國의 시멘트産業 略史(解放前)

洪 榮 裕  
 <韓國洋灰工業協會調查課長>

## I. 輸入에 完全 依存하던 時代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멘트공장이 完工된 해는 1919年 12月로서 寶信閣에서 올려 퍼진 自由 獨立의 종소리가 잠자는 民族魂을 일깨우던 바로 그해가 저물어 갈 무렵이다. 그러나 이러한 現代文明의 礎石이 되는 시멘트 産業이 우리의 손에 의해서 이룩되지 못하고 아시아 大陸 전반을 支配하기 시작한 日本人에 의해서 이룩되게 되었다.

1917年 6月, 第1次世界大戰이 開戰된지 4년째 되는 이해에 戰雲의 局面이 日本을 위해 유리하게 展開되기 시작하자 終戰에 대비하여 滿洲 및 中國市場에의 進出을 目標로 日本小野田시멘트

트製造株式會社에서는 滿洲에의 병참선인 京義線 平壤郊外 勝湖里에 시멘트 工場을 着工하기에 이른다. kiln 1基로 구성된 이 공장은 年間 生産能力이 35 萬樽(註: 1樽=170kg 들이)의 것으로 3·1 獨立運動이 무참히 霧散되던 그해 12월에 完工을 보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시멘트는 이때까지만 해도 거의 대부분을 日本으로부터 수입해 왔는바 日本統監府가 設置된 이후인 1908年에야 정확한 시멘트 수입량이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京仁철도 仁川—鷲梁津間 공사가 1899年 9月 18日에 준공된 바 벌써 1908年 以前에 상당한 시멘트의 수입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日本에서의 시멘트 輸出은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96년부터 집계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는 <表-2>에서 보는 바와 같이 統監府統計에 의해 1904년부터 시멘트 및 石灰의 수입이 집계되고 있다. 이를 비교해 볼 것 같으면 1904년의 한국 시멘트 및 石灰 수입액은 203,823圓이며 이것은 그해 日本시멘트 對外輸出額의 약 37%에 해당한다. 또 1905년의 한국 시멘트 및 石灰

<表-1> 日本의 시멘트 輸出

年 度	數量 (單位 picul)	金額 (單位 圓)	數量 (%換算)
1896	23,226	25,372	1,405
1897	9,381	16,257	567
1898	21,086	36,955	1,275
1899	46,487	62,632	2,812
1900	150,884	194,467	9,125
1901	178,155	245,081	10,775
1902	228,405	308,350	13,814
1903	417,492	596,205	25,250
1904	390,854	548,497	23,639
1905	316,144	395,392	19,120
計	1,782,114	2,429,208	107,782

資料: 東洋經濟新報社, 日本貿易精覽 p.106-7 1935年刊  
 註: 1picul=60.48kg

<表-2> 시멘트 및 石灰輸入(1904-1908)

年	數量 (%換算)	數量(斤)	金額(圓)	備考
1904	8,104	13,505,900	203,823	
1905	7,511	12,518,200	166,115	
1906	23,832	39,719,345	454,610	
1907	25,808	43,014,100	746,638	
1908	13,004	21,672,890	267,694	

資料: 第3次統監府統計年報 p.729

註: 1%= $\frac{5,000}{3}$ (斤)

韓國의 시멘트 輸入(I) (1908~1925)

<表-3>

(單位: 斤, 圓)

年	中 國	日 本	其 他	計	% 換算	備考(資料)
1908		(202,333)	英(40)美(31,666)	(234,036) (323,851)	9,751	第3次統監府統計年報
1909					13,327	↑
1910	(—) —	(371,063) 25,126,514	(10,321) 651,125	(381,384) 25,777,639	15,467	
1911	(14,743) 1,062,709	(526,725) 35,100,347	(413) 23,923	(541,881) 36,186,979	21,712	朝鮮總督府統計年報 大正6年 p. 343 總督府編
1912	(131,692) 9,880,270	(524,975) 37,564,939	(3,392) 203,935	(659,959) 47,649,144	28,589	
1913	(154,776) 10,791,803	(546,088) 39,288,472	(578) 22,661	(701,442) 50,102,936	30,062	
1914	(45,666) 4,039,866	(443,734) 42,631,327	(1,288) 110,970	(490,688) 46,782,163	28,069	
1915	(13,404) 1,352,576	(631,571) 69,250,925	(106) 1,225	(645,081) 70,604,726	42,363	
1916	(3,288) 283,805	(787,181) 79,507,602	(10) 227	(790,479) 79,791,634	47,875	
1917	(15,232) 782,989	(1,669,867) 96,553,786	(227) 460	(1,685,326) 97,337,235	58,402	
1918	(11,499) 533,277	(1,804,702) 84,351,700	(380) 416	(1,816,581) 84,885,393	50,931	
1919	(6,267) 276,100	(1,599,808) 74,148,900	(218) 400	(1,606,293) 74,425,400	44,655	
1920	(68,878) 2,234,200	(1,630,263) 49,686,600	(53) 100	(1,699,194) 51,920,900	31,153	
1921	(10) 400	(2,030,997) 90,546,100	(—) —	(2,031,007) 90,546,500	54,528	同昭和元年 (3年刊) p. 282
1922	(1,341) 45,300	(2,424,222) 102,260,800	(—) —	(2,425,563) 102,306,100	61,384	
1923	(96) 3,700	(4,146,732) 157,673,500	(655) 2,800	(4,147,483) 157,680,000	94,608	
1924	(60) 1,500	(1,613,266) 67,931,800	(325) 3,900	(1,613,651) 67,935,200	40,761	
1925	(203) 8,300	(1,485,716) 68,391,000	(—) —	(1,485,919) 68,399,300	41,040	

註: 1) % =  $\frac{5,000}{3}$  斤 2) ( ) 內는 金額

수입액은 166,115 圓이며 이것은 같은 해 日本의 시멘트 수출액 395,392 圓의 약 30%에 해당하는다. 또한 日本側 문헌에 의하면 韓國에 대한 日本에서의 시멘트 수출이 1906年에는 대폭 增大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시멘트 및 石灰 수입 통계 중 石灰의 비중은 아주 적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바 이 점을 미루어 보아 이 당시 日本의 수출 시멘트량 중 약  $\frac{1}{3}$ 은 우리나라에서 수입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莫大한 量의 시멘트를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日本은 韓國의 産業을 日本의 植民地化를 위해 枯死시켜 갔기 때문에 마침내 1910年代 일본의

시멘트 生産이 45 만톤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통치하던 韓國內에서의 生産은 계획하지도 않고 있었다.

1908년 日本으로부터의 우리나라 시멘트 수입량은 202,333 圓(약 8,430 톤)에 불과했으나 10년뒤인 1919년에 가서는 1,599,808 圓(44,489톤)으로 무려 8배의 上昇을 가져 오게 된다. 이러한 수입은 1919년을 예로 들어 볼 때 99.6%가 日本에 依存하게 되는 完全 隸屬經濟에 轉落하게 되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日本의 시멘트 産業은 시멘트 生産 기술의 白眉라고 할 수 있는 로타리 키른이 英國

人「랜잠」에 의해 發明되던 1873년에야 겨우 研究 시작된 바 이후 30年 동안에 장족의 발전을 이룩했던 것이다. 즉 1873년 日本의 渡美全權 副使隨行員이었던 宇都宮三郎이 歸國하여 赤坂池 製作寮에서 시멘트 研究를 着手하고 그해에 東京 深川에 최초의 공장이 建設되게 된다.

現代式 中小工場의 굴뚝보다도 작다고 하면 적당한 表現이 될 垂直式 키른에서 겨우 시멘트 生産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것은 英國人 Joseph Aspdin이 現代적인 포틀랜드 시멘트를 發明한 1824년 이후 꼭 50년이 지난 후의 일인 것이다. 이러한 日本의 시멘트 生産技術은 1887년까지만 해도 독일의 技士를 초빙하지 않으면 안되고 1903년에도 美國에서 키른을 도입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生産工場을 건설하지 못하던 水準이었으나 淸日戰爭, 露日戰爭을 겪는 동안 軍需産業으로서 또는 戰後의 好景氣를 타고 크게 擴大되기에 이르며 1913년에는 日本 최초의 大型 로타리 키른(2.5m×60m)을 設置하게 된다.

이러한 發展은 臺灣·關東州·樺太를 손아귀에 넣고 韓國을 併合하게 되자 蒸蒸日上하게 加速化된다. 특히 1906年 美國의 캘리포니아州에서 일어난 大地震과 1923년에 일어난 關東大震災에 따라 시멘트의 眞價가 日本 國內外에 크게 알려지게 되자 日本의 內需와 輸出은 高速度로 팽창하기에 이르른다.

이러한 時點에서 世界第1次大戰 이후의 滿洲市場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의 勝湖里 공장이 문을 열게 된 것이다.

日本의 시멘트 産業界는 1890年代에 최초로 규모가 적기는 했으나 資本主義의 恐慌을 경험하였으며 1894~95년에 걸친 淸日戰爭 이후 급속도로 好景氣를 맞이하여 시멘트의 不足 현상을 招來하기도 하였고 다시 1898년에는 不況이 深化되어 各社가 操業短縮을 전체로 한 共同 시멘트 合資會社(共同販賣機關)를 設立하는 시련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恐慌은 1900년대를 고비로 마침내는 露日戰爭으로 擴大되는 것이다. 이때부터 日本은 1次大戰이 발발되어 終戰되는 1914을 거쳐 1920년대까지 長足の 發展을 이룩하게 된다. 특히 1次大戰中 交戰國의 東洋市場은 日本의 獨舞臺가 되어 결정적인 日本資本主義의 海外

韓國의 시멘트 生産(I)  
(1919~1928)

<表-4> (單位: %, 圓)

年	生産	生産額	資 料
1919	510		平壤全誌 p. 578 東洋시멘트 10年史 p. 66
1920	51,000		
1921	51,340		
1922	53,210		
1923	61,829		朝鮮總督府統計年報 (昭和元年 p. 194, 昭和6年 p. 200)의 生産 額을 환산 東洋시멘트 10年史 p. 66
1924	72,250		
1925	102,540		
1926	203,772	4,144,800	
1927	167,728	3,414,948	
1928	139,100		

進出에 의한 成長을 이룩하게 된다. 「戰前인 1912년에는 73億圓이었던 日本貨弊資本(國債, 地方債, 社債, 銀行預金, 郵便貯金, 金錢信託, 保險會社準備金 등의 合計)은 1915년에는 100億圓, 1921년에는 250億圓으로 增大되었고 正貨保有量도 1914년의 3億 4千萬圓에서 1920년에는 일약 7배에 가까운 21億 7千萬圓이 되었다. 이러한 資本增加에 의하여 國內外의 購賣力이 激增하였고 이에 對應하여 더욱 많은 利潤을 얻으려고 無限히 事業의 擴張을 企圖하고 그 結果 株式會社의 拂入資本은 1913년에 7億 7千萬圓에 불과하던 것이 1919년에는 54億圓, 1921년에는 실로 80億圓이 되었다」.

이렇게 擴大된 日本經濟는 戰後對外貿易의 激減과 더불어 沈滯狀態에 빠지게 된다. 日本의 對外貿易은 1918년에 1,962,100千圓, 1919년에는 2,098,837千圓으로 上昇하였다가 1920년부터 下降하기 시작하여 1921년에는 1,252,837千圓으로 急下降했다.

이러한 浮沈 속에서 資本主義의 경험을 담은 日本은 이미 1907년 淺野시멘트의 韓國出張所가 開設되어 前哨基地를 닦기 시작해 온 바 經濟規模의 擴大에 의한 自國內의 過剩投資를 극복하고 遊休資本 및 施設을 海外로 移轉시키고자 海外進出의 慾求가 높아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계에 있어서의 韓國은 日本의 가장 적절한 海外市場으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II. 小野田社 獨占期

日本은 韓國에 侵略한 後를 통해 우리나라의 資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資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日本政府나 총독부의 官吏·學界·實業界를 통해 꾸준히 전개되었고 많은 報告書가 出刊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資源 조사에 의해 우리나라의 石灰石鑛床에 대한 埋藏量과 그 試料의 化學的 分析까지 실시하고 있었던 바 그 經濟性이 오래전부터 높이 評價되어 왔다.

그러나 日本의 韓國 侵略 初期에는 그들 資本主義構造의 脆弱性과 植民地에의 工場 建設 기피로 이러한 資源活用이 遷延되어 왔으며 특히 韓國에 있어서는 產米國으로의 獎勵에 의해 더욱 抑制되어 왔다. 1919年 3·1 運動은 이러한 日本의 政策에 썩기를 박고 韓國産業의 振興을 위한 契機를 만들게 되었다. 그들 자신의 資本이 擴大되고 海外進出을 모색하게 되면서부터 소위 韓國에서 施行된 「文化政策」은 우리나라에서의 工業建設을 制限하는 「會社令」을 폐지하게 되었고 이렇게 하여 서서히 工場建設의 氣運이 떠돌게 되었다.

시멘트産業部門에서는 淸日戰爭後 최초로 滿州의 關東州에 分工場을 設置했던 小野田시멘트社가 여러 가지 利點에 着眼하여 勝湖里工場을 建設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공장은 工場敷地가 4만 坪에 原料採掘區域은 80만 坪이나 保有하게 되어 當時만 해도 우리나라의 굴지의 공장이 되게 되었다. 이 지역은 우수한 石灰石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근에서 無煙炭의 產出으로 燃料 조달이 容易하였다. 또한 韓國의 南部 지역은 日本 시멘트의 수입 시장으로서 계속 남겨둘 必要가 있었는데 반해 이 지역은 大同江口를 통한 海運과 京義線鐵道에 의한 陸運의 有利性 및 水利施設이 뒤진 黃海·平南北市場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 공장은 그 후 10년간 韓國의 시멘트 産業을 구성하는 유일한 存在가 되게 되었다.

1921년 2월 이 공장은 年産能力을 140,760톤으로 擴張했으며 1928년 2월에는 다시 224,400톤으로 증가시켰다. 또한 1936년 1월에는 3次 증설을 통해 年間 生産 能力이 280,000톤에 이른다. 한편 1928년에 小野田시멘트製造株式會社는

<表-5> 韓國의 시멘트 需給實績

年度	生産 (%)	輸入 (%)	輸出 (%)	消費	
				總 (%)	1人當 (kg)
1903	—	—	—	—	—
1904	—	8,104	—	8,104	—
1905	—	7,511	—	7,511	—
1906	—	23,832	—	23,832	—
1907	—	25,808	—	25,808	—
1908	—	9,751	—	9,751	—
1909	—	13,327	—	13,327	—
1910	—	15,467	—	15,467	1
1911	—	21,712	—	21,712	2
1912	—	28,589	—	28,589	2
1912	—	30,062	—	30,062	2
1914	—	28,069	—	28,069	2
1915	—	42,363	—	42,363	3
1916	—	47,875	—	47,875	3
1917	—	58,402	—	58,402	3
1918	—	50,931	—	50,931	3
1919	510	44,655	—	45,165	3
1920	51,000	31,153	23,000	59,153	3
1921	51,340	54,528	22,000	83,868	5
1922	53,210	61,384	16,000	98,594	6
1923	61,829	94,608	30,000	126,437	7
1924	72,250	40,761	54,000	59,011	3
1925	102,540	41,040	23,000	120,580	6
1926	203,772	70,264	25,000	249,036	13
1927	167,728	85,341	26,000	227,069	12
1928	139,100	130,533	25,000	244,633	13
1929	276,135	105,814	66,706	315,243	16
1930	252,070	108,142	70,000	290,212	14
1931	224,828	70,735	53,000	242,563	12
1932	213,387	95,385	22,840	285,932	14
1933	248,994	138,165	61,076	326,083	16
1934	226,528	219,696	66,597	379,627	18
1935	464,550	214,283	149,949	528,884	23
1936	569,858	356,707	294,219	632,346	29
1937	665,000	227,331	148,134	744,197	33
1938	637,000	114,715	243,000	508,715	22
1939	—	253,335	179,368	—	—
1940	—	—	—	—	—
1941	—	—	—	—	—
1942	—	6,390	—	—	—
1943	—	380	—	—	—
1944	1,003,307	—	—	—	—
1945	—	—	—	—	—

註: 1) 1904~1907까지는 시멘트와 石灰의 合計임.  
2) —은 없음, 空欄은 不明.

韓國內에서의 事業을 擴大하고 咸南北市場과 間島 등에 進出하기 위해 咸南 德源 부근 川內里에 새로운 생산 공장을 新設하여 年産 132,720 톤의 생산 시설을 완성하였다.

이 당시에 있어서 시멘트의 原料構成을 볼 것 같으면 시멘트 톤당 石灰石 1.2 톤, 粘土 0.3 톤, 석탄 0.3 톤, 기타 石膏 및 鐵粉이 약간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 당시 170 kg 들이 한동이당 原價構成을 볼 것 같으면 <表-6>과 같다.

棉當의 原價計算

<表-6> (單位:圓)

	價 格	比 重(%)	備 考
原 石	0.450	26	
粘 土	0.078	4	
石 炭	0.400	24	
石 膏	0.065	4	
動 力	0.120	7	
工 賃	0.090	5	
修 繕	0.100	6	
雜 費	0.130	7	
稅 金	0.150	9	
利 息	0.140	8	
計	1.733	100	

資料: 朝鮮工業の現段階(1933年版)  
川合創武著 P.114

한편 勝湖里 공장의 1932年代의 投資 현황을 볼 것 같으면 로타리 키른 3基에 年産能力이 224,400 톤에 이르고 있다. 한편 川內里공장을 포함한 小野田社 韓國 전체의 동이當 固定資産을 日本內工場의 분석 결과에 따른 4圓 18錢으로 본다면 勝湖里 공장은 720 만圓의 投資가 이루어진 것으로 推定된다. 그러나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동이當 3圓 50錢으로 계산해 본다면 投資額은 6百萬圓으로 산출되고 이에 의한 採算은 다음과 같다.

<小野田시멘트 勝湖里공장의 採算>

投資額	6百萬圓(減價償却을 考慮했음)
生産量	80萬동이(操業短縮을 고려했음)
1동이當利益	1圓으로 보임(好況을 基準)
年利益	80萬圓
償却費	24萬圓(25年間 償却으로 계산, 理想的인 것은 15~20年임)
純利益	56萬圓

利率 9分 3厘 3毛

이러한 추산은 같은 小野田社의 日本內 愛知·八幡공장이 같은해 年 1割의 배당에서 6分으로 내린 점을 감안해 볼 때 아주 높은 수준이 아닐 수 없다. 더우기 操業短縮에 의한 實績으로 추산되었기 때문에 풀稼動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이보다 훨씬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추산은 運轉資本과 在庫가 考慮되지 않고 있어 正確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 要素가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採算性 때문에 한국에서의 시멘트産業은 有望産業으로 指目되어 日本의 各社에서는 韓國內에서의 事業擴張에 눈독을 들이게 되었다.

한편 건설되지 얼마되지 않은 川內里공장은 로타리 키른 2基로 年産能力이 132,720 톤으로서 1동이當 固定資産은 勝湖里공장보다도 더 낮아 3圓內外로 추정되었으며 따라서 그 投資額은 220萬圓으로 계산되고 여기에서 元山까지의 鐵道投資 15萬圓을 넣어 본다고 해도 235만圓內外로 생각되어 勝湖里공장에 비해 不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 日本內에서의 시멘트 공장 適正規模가 17만톤 이상으로 分析되던 때였기 때문에 이에 未達한 실정이었으나 韓國이라는 특수사정 때문에 좋은 운영 실적을 올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장 운영상의 이점은 韓國人에 대한 人件費 差別 등에 의해 形成되었을 것임이 틀림 없는 사실이다.

한편 勝湖里 공장이 가동된 후에도 시멘트 輸出 入 상황은 改善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日本에 의존하고 있는 輸入은 28년대까지 계속해서 輸入量이 輸出量보다 3배내지 10배까지 높은 실적을 보여 주고 있다.

III. 日本業者들의 競争期

한편 日本內에서는 1924년 12월 第1次 시멘트聯合會가 設立되고 生産制限을 실시하여 1940년 8월까지 계속되게 되고 1930년 9월에는 日本의 淺野·小野田·豊國·大分·宇部·日本の 6個 會社가 九州·臺灣을 포함한 韓國에 있어서의 共販協定을 체결하고 各社의 去來는 組合에 이첩하여 과거 1개년간의 出荷實績에 의해 미

리 안분한 割當 수량내에서 판매함으로써 그들의 競合에 의한 價格下落을 防止하고 그들의 利權을 끝까지 固守하고 있다.

그당시 日本 각 시멘트會社의 出荷量은 거의 비밀에 붙여지고 있어 알 수 없으나 生産能力에 비해 놀랄 정도로 낮은 數值였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組업 단축 협정과 함께 한국에의 輸出市場固守를 위한 努力으로 우리나라의 시멘트 産業發展이 抑制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消費는 韓國産品」으로라는 구호와 운동이 전개되고 비록 韓國人에 의해 경영되는 회사는 아닐지언정 한국내에서의 시멘트需要를 충분히 보강해 줄 수 있는 生産供給능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더우기 原價面에 있어서 韓國의 産品은 싸기 때문에 有利했음에도 불구하고 日本의 높은 協定價格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生産을 統制받지 않으면 안되었고 이러한 狀況에 대하여 當時의 日本人까지 개탄해 마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 있어서의 工業發展 규제의 완화

와 農業 관계 시설의 대폭적인 擴張, 羅津港 등 各港口의 新·改築 鐵道網의 확장 및 吉林地方에서의 日本의 事業擴張 등으로 韓國의 北部地域에서는 계속 시멘트 공장의 擴張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南部는 여전히 九州를 시멘트 生産 中心部로한 日本의 소비 市場으로서 내맡겨져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역시 시멘트聯合會를 통한 각 會社의 增産 對策은 가증적으로 制限되고 있었으며 심한 경우 産業統制法의 발동으로까지 이를 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日本內에서의 施設의 增大는 쉽지가 않았다. 이렇게 되자 日本內工場의 操業率을 높여 그 産品을 海外로 반출하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특히 시멘트 業界에서 라이벌인 淺野와 小野田은 韓國 및 滿洲 關東州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상호 견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1936 년대까지 韓國內에서의 工場의 新設이 중지되고 每年 日本으로부터의 시멘트 수입을 가속도로 增大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1927 년도의 우리나라 시멘트 수입액은 2,904 千圓이었으나 1935 년에는 4,917 千

<表-7> 한국의 시멘트 생산(II) (1929~1945) (單位: %, 圓)

年	代	生 産	生 産 額	資 料
1 9 2 9		por. 261,016 (1,624,235(樽) 276,135)	6,098,320 5,620,808	朝鮮總督府統計年報 昭和5年(7年刊) p. 205 p. 199
1 9 3 0		por. 252,070 (252,752)	5,503,400 (5,519,775)	6 (8") p. 211, 222
1 9 3 1		por. 224,590 (224,828)	(5,310,970) 5,316,673	6 (8") p. 811, 825
1 9 3 2		por. 213,387	5,334,692	7 (9") p. 232
1 9 3 3		por. 248,994	5,625,470	8 (10") p. 182
1 9 3 4		(226,528)	(5,515,000)	9 (11") p. 164, 178
1 9 3 5		por. 464,550	9,544,700	10 (12") p. 164
1 9 3 6		por. 569,858	11,257,819	11 (13") p. 158
1 9 3 7		(665,000)		日本統計年鑑(8回) p. 526
1 9 3 8			12,318,000	同盟時事年鑑
1 9 3 9				
1 9 4 0				
1 9 4 1				
1 9 4 2				
1 9 4 3				
1 9 4 4				
1 9 4 5				

資料: 朝鮮總督府統計年報

註: 1樽은 170kg, por. 은 포틀랜드 시멘트, ( )內 數字는 포틀랜드 시멘트+其他

圖에 이르게 된다.

이러던 중 小野田시멘트製造株式會社는 1934年 11월에 韓國 및 滿洲에서의 그들의 工場을 중심으로 각각 朝鮮小野田社 및 關東州小野田社를 設立하게 된다. 1931년 만주 침략을 계기로 日本의 産業界는 제 1차世界大戰이 終結된 20年 이후 不況局面에 젖어 들던 業界의 霧圍氣가 다시 上昇勢를타고 비약하게 되었으나 시멘트 産業의 잇단 擴張으로 인해 1933년 말부터는 生産 및 販賣 갈땔을 다시 強化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34년에는 52%의 조업 단축을 하는 등 日本의 시멘트 業界는 크게 萎縮되기에 이르렀다. 小野田시멘트 株式會社는 이러한 日本 業界의 制限을 벗어 나기 위하여 韓國과 滿洲에서의 그들의 工場을 分離 獨立시켰던 것이다.

한편 그해 12월에는 이 新設兩社와 三井物産 간에 一手販賣契約를 締結하여 조업 단축에 의해 발생되는 損失을 日本 本土 外部에 있는 工場을 利用하여 최대한 補充하기에 바빴다. 다시 1935년 9월에는 日本內 聯合會 加盟社들이 韓國內에서의 그들의 販賣를 強化하기 위해 朝鮮에로의

수출 시멘트 出荷 폴 組織을 결성하게 된다. 이러한 措置는 곧 稼動하게 될 韓國內에서의 生産 施設 擴張에 對備하기 위해 一絲不亂한 行動統一을 필요로 해 取해진 것이다.

朝鮮小野田社가 新設되면서부터 한국내의 自己 工場施設을 擴大함과 아울러 다른 日本內의 시멘트 會社들도 이제 韓國에 上陸하게 된다. 日本內에서의 시멘트 産業에 대한 規制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의 시멘트 産業은 制限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1936年 2月에는 宇部시멘트社系統의 朝鮮시멘트株式會社가 黃海道 海州에 年産能力 36만톤의 新工場을 建設하였고 또한 같은 해 6月에는 朝鮮小野田社에서 咸北의 古茂山에 年産能力 24만톤의 工場을 준공하였으며 역시 같은해 6월에 朝鮮淺野시멘트株式會社가 資本金 3百萬圓으로 創立되고 다음해 11月에는 黃海道 鳳山의 馬洞에 年産能力 18만톤 규모의 新工場을 完工하게 된다. 1928년 이후 抑制된 施設의 擴張이 1936~37년대에 와서 일시에 78만톤의 施設增大라는 기현상으로 發展되게 되어 既存의 生産能力 43만

<表-8>

한국의 시멘트 輸入(II) (1926~1945)

年	日本으로부터의 輸入(斤)	金額 (圓)	數量(%換算)	資 料	
1926	117,107,000	2,484,524	70,264	} 朝鮮總督府統計年報, 昭和2年(4年刊) p. 273 } 昭和5年(7年刊) p. 274 同6年(8〃) p. 295 7 (9〃) p. 312 8 (10〃) p. 252 9 (11〃) 10 (12〃) 11 (13〃) 12 (14〃)	
1927	142,235,500	2,904,033	85,341		
1928	217,554,200	4,091,298	130,533		
1929	176,356,600	3,233,854	105,814		
1930	180,236,500	2,693,212	108,142		
1931	117,891,700	1,725,749	70,735		
1932	158,975,400	2,306,598	95,385		
1933	230,274,800	3,348,542	138,165		
1934	366,160,600	5,472,044	219,696		
1935	357,139,000	4,916,413	214,283		
1936	594,511,600	7,400,055	356,707		
1937	378,884,900	4,917,135	227,331		
1938		2,523,738 (5,822,478) 5,826,708			} 朝鮮工業協會會報, } 殖産銀行統計月報, } 朝鮮銀行統計月報
1939					殖産銀行統計月報
1940					
1941					
1942		319,480			
1943		26,988			
1944					
1945					

註: ( )內는 殖産銀行統計月報에 의한 數值임.

韓國의 시멘트 輸出 (1926~1945)

(單位: 斤, 圓)

<表-9>

年	日 本	關 東 州	滿 洲 國	其 他 外 國	計	% 換 算
1926						
1927						
1928						
1929					111,176,100 ☆ (1,997,000)	66,706.
1930					☆ (1,789,275)	
1931					☆ (1,251,889)	
1932	28,387,600 (427,169)		9,679,100 (168,143)	— (—)	38,066,700 (595,312)	22,840.
1933	27,824,000 (387,239)	1,419,300 (21,808)	72,491,800 (1,186,470)	58,300 (770)	101,793,400 (1,596,287)	61,076.
1934	8,667,900 (118,129)	169,000 (2,726)	102,157,600 (1,700,158)	800 (13)	110,995,300 (1,702,897) ● (1,821,026)	66,597.
1935	188,973,300 (2,797,230)	1,300 (22)	60,890,400 (941,513)	50,600 (612)	249,915,600 (3,739,377)	149,949.
1936	401,974,000 (4,770,162)	300 (4)	88,390,100 (1,145,355)	— (—)	490,364,400 (5,915,521)	294,219.
1937	182,772,900 (2,343,004)	400 (8)	64,116,900 (885,852)	— (—)	246,890,200 (3,228,864)	148,134.
1938					● (5,197,373) ○ (3,282,142)	
1939					● (3,946,086) ○ (4,497,075)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資料: 1) 朝鮮總督府統計年報 2) ☆表는 年鑑(朝日, 讀每) 3) ●表는 朝鮮工業協會會報 4) ○表는 殖産銀行統計月報

註: 1) 1% =  $\frac{5,000}{3}$  斤 2) ( ) 內數字는 金額

돈에 追加됨으로써 놀라운 增大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施設擴張의 이면에는 軍需産業 基地로서의 韓國을 생각했던 것이며 결코 韓國內에서의 産業化를 위한 措置가 아니었음을 注意하여야 한다. 즉 1930年 9월에 발발한 소위 「滿洲事變」은 1937年 7월에는 中日戰爭으로까지 擴大되기에 이르렀으며 이 戰爭을 이끌어 가자면 韓國의 資源을 充分히 利用하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韓國內에서의 施設擴張은 戰略的인 관점에서 배풀어진 措置였기 때문에 그 生産 統制는 더욱 加重되기에 이른다. 1936년을 고비로 韓國에 있어서의 시멘트 産業도 統制의 強化로

許可制度가 確立되었다. 또한 36년도의 우리나라 시멘트 소비가 60만톤 수준이었던 점을 보아 軍需品으로의 수출 擴大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生産設備의 반은 操業을 단축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물론 다음과 같은 소비의 增大도 무시할 수 없는 事實이다. 37년 9월에는 鴨綠江水力發電株式會社가 創立되고 여기에 소요되는 시멘트 供給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분공장이 水豊에 設置되기에 이르며 이 분공장에는 이보다 한해 앞서 完工을 본 勝湖里 공장의 제 4호 kiln 으로부터 생산되는 크링카를 專擔 수송·분쇄하였었으며 이 공장은 제 2차大戰이 막바지에 이른 1944년경에 문을 닫게 된다.



한편 滿洲 への 각 鐵道線이 급속히 늘어나고 戰略工場의 공사가 增加되기도 하였다.

급기야는 37년 3월 10일에 日本은 「重要産業統制法」을 최초로 「外地」에 적용한다는 「勅令」을 반포하고 시멘트의 生産統制에 들어 간다. 朝鮮 經濟讀本에 의하면 1937년의 한국의 시멘트 生産能力은 小野田 3個 工場을 합해 最大 90만톤, 適正 84만 4천톤 외에 朝鮮 시멘트社 18만톤, 朝鮮淺野社의 年內 生産능력 4만 5톤을 합해 총 117만톤에 이르고 있다. 같은 해 새로운 소위 「內鮮協定」에 의해 한국내의 生産은 58만톤으로 割當되어 58%의 操業短縮率을 보여주는 經營無視 狀態의 戰爭遂行 目的을 위해 시멘트 業界가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日本內에서도 큰 차가 없었으며 여전히 韓國에의 수출은 그들의 産業基盤을 보존하기 위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그 비중면에 있어서 완화하는 태도를 취하게 됨으로써 1936년의 輸入額 7,400千圓을 피크로 매년 감소 추세에 들어 가게 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輸入額 減少도 결국은 日本內 產品이 서서히 일기 시작한 소위 「大東亞戰爭」의 熱風으로 해서 南方으로

빠져 가는 데에서 주로 起因하게 된다.

#### IV. 2次大戰時의 시멘트 産業

1938년 2월 韓國의 시멘트 産業界는 3社 5個 工場으로 이들이 모여 한국의 시멘트 판매 協調機關으로서 木曜會를 결성한다. 이 木曜會는 다음해 10월 發展의으로 解體되고 朝鮮시멘트協會가 設立되게 된다. 다시 朝鮮시멘트協會는 1942년 11월에 朝鮮시멘트工業組合으로 改稱되며, 이 기구는 8·15光復 前까지 戰爭遂行을 위한 物資調達의 한 方面으로서 시멘트 조달의 임무를 그 중요 업무로 다루게 된다.

한편 이 시기에 日本內의 과잉 施設을 外部로 疏開시키는 一連의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 바 1940년 日本의 淺野시멘트株式會社는 8월에 그의 佐伯工場에 가설되어 있던 2基를 朝鮮淺野社로 移設하게 된다. 이 외에도 小野田시멘트社는 그의 德浦工場을 閉鎖하고 키른을 朝鮮小野田社가 經營하던 滿洲內의 工場으로 이설하는 등 戰時를 앞에 둔 再編成 過程을 겪게 된다.

朝鮮小野田社는 1936년 단계에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의 生産을 獨占해왔던 바 朝鮮시멘트

<表-10>

全國工場 및 生産能力

(基準年度: 1943年)

工場	所在地	建設會社	kiln數	年産能力(%)	着工 ~ 完工	비 고
勝湖里	平壤近郊	日本小野田(株)	1	59,500	1917.6~1919.12	(年産能力 35만樽) 1次擴張 (月産能力 6만9천樽으로) 2次 " (月産能力 11만樽으로) 3次 " 1)
			2	140,760	1921.2	
			3	224,400	1928.2	
			4	280,000	1936.1	
川內里	咸南德源	日本小野田(株)	1	132,720	1928.2	(年産能力 730,328樽) ?
			2	260,000	?	
古茂山	咸北	朝鮮小野田(株)	2	240,000	1936.6	※1934.11, 日本小野田社는 朝鮮小野田社를 設立
三陟	江原道	"	1	180,000	1937.3~1942.7	
海州	黃海道	朝鮮セメント(株)	3	360,000	1936.2	日本宇部系
馬洞	黃海道鳳山	朝鮮淺野(株)	2	180,000	1937.11	※1936.6 朝鮮淺野(株)設立, 서울에 스텔트 공장도 신설(現 韓國스래이트龍山工場자리) 日本佐伯工場에서 移設擴張
			(2)	?	1940.8~ ?	
6工場		3社	(2) 14基	1,500,000		

資料: 韓國洋灰工業協會가 조사한 各種資料를 綜合·整理한 것임.

註: 1) 一部 문헌에는 1932년경 年産能力이 292,440톤(月産能力 143,353樽)으로 擴張된 것으로 되어 있음.

社와 朝鮮淺野社의 上陸으로 韓國內에서의 地位는 相對적으로 弱화되었으나 거의 20년간에 걸친 경험을 살려 韓國의 南部地域에서의 事業을 擴張하게 된다. 즉 오래전부터의 그들의 宿願이었던 三陟工場과 聞慶工場에 눈을 돌리게 된다. 계속 日本의 시멘트 商品市場에 불과했던 南部地域이 때마침 日本으로부터의 수입이 減少됨에 따라 自體 供給能力을 갖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기 때문이다.

처음 朝鮮小野田社는 三陟에 18만톤, 聞慶에 18만톤(日産 500톤) 급의 공장을 동시에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三陟工場만이 1937년 3월에 着工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 공장은 1942년 7월에 총공사비 900만圓을 들여 完工하게 되었다. 그러나 戰時的 工事資材難 등이 겹쳐 만 5년 4개월만에야 完工을 본데다가 그 生産實績마저 本計劃에 크게 未及하여 年生産實績이 84,000톤 内外에 불과한 반신 불수의 工場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즉 이 공장이 完工된 다음 해에는 8만 5천톤의 生産을 할 수 있었으나 그 다음 해에는 5만 5천톤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고 解放이 되던 45년에는 다시 1만 6천톤 수준으로까지 下落하는 凋落의 현상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이 工場의 生産減退추세는 곧 日本의 시멘트 生産이 감소되는 모습을 그대로 반영시킨 것이며 마침내는 「아시아 民族의 共存共榮」이라는 旗幟下에 遂行해 오던 소위 「大東亞戰爭」에서의 慘敗를 맛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與件 때문에 그들이 敗亡하기 이전까지는 聞慶工場의 건설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더우기 우리 손에 의해서는 시멘트 産業을 그간 한번도 경영해 보지 못한채 日本의 敗亡과 함께 찾아온 우리나라의 光復도 잠깐 동안의 기쁨뿐이요 國土는 다시 南과 北으로 分斷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시멘트 總年間生産能力 150만톤 중 오직 三陟工場의 반신 불수 공장 18만톤만이 외로운 孤島 모양 南쪽에 남게 되고 나머지 3個社 5個工場의 132만톤 生産能力의 시멘트 生産據點은 완전히 北으로 歸屬하게 된다.

日本의 植民政策이 불러 일으킨 悲劇은 光復後

分斷된 大韓民國의 産業前途를 암담한 수렁으로 몰아 넣게 되었으며 韓國內의 시멘트 産業史의 斷絶을 意味하는 狀態에로까지 퇴락의 不運을 겪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南·北韓이 다시 합쳐지는 날이 北韓에 남아 있던 大部分의 시멘트 産業施設을 中心으로 한 歷史가 다시 架橋로 연결되어질 것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

**筆者註** : 解放前 시멘트 産業史를 整理하기 위하여 利用 가능한 문헌을 최대한으로 參照하고자 調査課 朴俊圭 學兄과 함께 지난 7~8월 중 약 1개월간 市內 수개의 도서관을 순회하였으나 미비한 부분이 한 두군데가 아니다. 특히 本拙文의 要諦라고 할 <表-5> 및 <表-10>에 관하여 보건데 이 兩表는 部分的으로 조사된 數值·記錄 등을 綜合한 것이기 때문에 完全한 것이 못된다. <表-5>에 있어서 1939년 이후의 數値는 各銀行의 통계를 필두로 모든 통계가 統制됨에 따라 部分 記錄에서 겨우 推出해 낸 것임을 밝혀 둔다. <表-10>의 경우는 대우기 당시의 기록을 들추어 맞추어 넣은 것이며 部分的으로는 當時 業界에 근무하던 분들의 證言을 토대로 했다. 따라서 이러한 點을 감안하여 보다 完全無缺한 資料의 발굴이 가장 所望되는 바이며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완벽한 史實을 남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文責에 따른 辯明을 多少나마 添言하는 바이다.

本拙文을 記述함에 主로 참조했던 文獻은 다음과 같다.

#### 統計編

- ① 第3次統監部統計年報
- ② 朝鮮總督部統計年報(明治·大正·昭和年間)
- ③ 日本統計年鑑
- ④ 朝鮮銀行統計月報, 殖産銀行統計月報
- ⑤ 朝日 및 每日年鑑
- ⑥ 大韓民國統計年鑑, 商工部統計月報
- ⑦ UN貿易統計年鑑
- ⑧ 韓國銀行統計月報, 韓國産業銀行統計月報

#### 文獻編

- ① 朝鮮工業의 現段階(昭和 8年刊), 川合彰武著
- ② 朝鮮經濟讀本(昭和 12年刊), 朝倉經濟研究所 編
- ③ 韓國經濟實況(上)(1957年刊), 韓國文化社 編
- ④ 日本セメント年鑑
- ⑤ 韓國의 産業(第1輯)(1958年刊), 韓國産業銀行 編
- ⑥ 韓國産業經濟 10年史(1955年刊), " "
- ⑦ 東洋시멘트 10年史(1967年刊), 東洋시멘트工業株式會社 編